

정시에서  
합격 확률 높은 대학  
찾고 싶어요!

1026호 독자 인터뷰 중

수시 전형으로 의학 계열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 내 아이가 무척 바쁘게 생활했어요. 알찬 학생부였지만 내신이 부족했는지 수시에서 지원한 의대, 치대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혹시 재수를 할 상황이 될지도 몰라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제대로 된 수능 준비는 3개월 정도에 불과했어요.

아쉬움이 컸는지 수능 성적 발표 전부터 아이는 재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시에 지원해야 하는데 정작 정시에 대해서는 아이나 저나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마다 백분위, 표준점수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던데 아이가 받은 점수로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은 대학을 찾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_광주시 동구 독자님



정시 지원 시 합격 확률 높은 대학 찾으려면?



독자 요청에  
〈내일교육〉이  
답하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도움말 허준일 교사(대구 경신고등학교)

# READER'S Q&A

## 모의 지원 서비스 있지만, 고득점이 우선 수시 재도전도 고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을 받은 후 무료 프로그램인 서울시교육청의 썬진학, 유료인 진학사, 유웨이 등의 모의 지원 서비스에 자신의 성적을 입력해두고 관심 있는 몇 군데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줍니다. 모의 지원 서비스의 경우 처음 학생들의 점수 표본이 많이 입력되지 않은 시점에는 합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다가 점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합격 확률이 떨어지기도 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정시 원서를 쓸 무렵, 즉 학생들의 점수 표본이 많이 들어온 시점이 더 정확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백분위, 표준점수 등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2021 입시에서는 <물리 I>을 응시해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970이었습니다. 쉽게 출제돼 만점자가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 백분위 적용 대학은 매우 불리하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그해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될지 쉽게 출제될지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의예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수로는 6~8개 이내로 틀려야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7개 틀린 학생이 6개 틀린 학생보다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별로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개수입니다. 올해 국어 1등급의 표준점수는 131~149점이었습니다. 2019년 수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표준점수였는데요.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 1등급 내 표준점수 차이가 18점이나 날 경우 국어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보통 원점수 기준 92점은 받아야 하는데 올해와 같은 통합 수능의 경우 자연 계열의 1등급 학생 수가 늘어났고 만점자도 많아 96점 혹은 100점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 수학 성적이 나쁜 경우 다른 과목을 잘 받아도 합격하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영어는 1등급, 과학탐구도 백분위가 높은 1등급, 즉 두 과목 다 98%는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대입에 재도전하면서 수능 점수를 잘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고 지역 인재 전형 등으로 수시 전형에도 다시 지원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지원하는 만큼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은 높습니다. 틀려야 하는 개수는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수능 점수를 받은 후 백분위가 유리할지 표준점수가 유리할지 그때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알아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잘했어요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관리한 점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때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와 성적만으로 지원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내신을 신경 쓰지 않고 소홀히 하기 쉬운데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점을 크게 칭찬하고 싶네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관리해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높게 만든 경우 재수할 때 다시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합니다. 수시 전형은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지만 재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많거든요.

\_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 @